

# 전북, 지능화 혁신기술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테크노파크, ‘2025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기술·성과 공유 워크숍’… 미래 산업거점 도약 기대

전북의 지능화 혁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15일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5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기술·성과 공유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가 주관했다. 지역의 지능화 혁신기술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전북지능화혁신연구센터의 추진 경과와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성과, 전북디지털융



합센터의 지원사업 현황, 그리고 퍼지컬AI(Physical AI) 실증(PoC) 사업 추진 방향이 소개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퍼지컬AI 실증사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퍼지컬AI 분야의 첫 실증 프로젝트로, 전북이 확보한 국가 예타면제 사업인 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과

맞물려 큰 기대를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전북을 퍼지컬AI 연구·산업화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기술성과 발표 세션에서는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교수진이 주도하는 10여 개의 현장 연계 지능화 기술개발 과제가 공개됐다. 주요 과제

는 △온대바이스 환경센서 기반 대기질 모니터링, △블록체인·DID 기반 데이터 품질관리, △스마트팜·스마트팩토리용 영상 전송 시스템, △딥러닝 기반 작물생장 모니터링 등으로, 지역 대학의 첨단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접목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날 연구는 산학연 협력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으며, 지능화 기술이 지역 산업으로 확산되는 선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기술사업화 및 산업 적용 가능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추진 중인 지능화 혁신기술의 발전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협전주시지부가 15일 전주효자초등학교(교장 고미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심천심(農心天心)’ 가치 전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초등생 대상 ‘농심천심’ 가치 전파

농협 전주시지부, 효자초 어린이들과 아침밥 교육·벼 수확체험

농협 전주시지부가 15일 전주효자초등학교(교장 고미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심천심(農心天心)’ 가치 전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쌀과 농업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우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침밥 먹기 교육과 전통방식을 활용한 벼 수확 체험으로 구성됐다. 아침밥 교육 시간에는 영양 균형 잡힌 식습관의 중요성과 함께 쌀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식단의 장점이 소개됐다. 특히 어린이들이 평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아침밥의 의미를

되새기며, 쌀 소비 확대와 국산 농산물의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체험활동에서는 하안진 지부장과 고미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이 일일 농부가 되어 지난 5월 직접 심었던 벼를 수확했다. 참여 학생들은 벼 베기부터 탈곡, 도정까지 농사 과정을 체험하며 농민의 수고와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몸소 느꼈다. 농협전주시지부는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벼를 수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과 농촌의 근본적인 가치를 배우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농진청, ‘농촌관광 가는 주간’ 맞아 특별 이벤트 진행

일상에 지친 마음을 농촌의 파스칼 풍경 속에서 달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열린다.

농진청은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맞아 치유농업 프로그램 무료 체험권을 증정하는 국민 참여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농촌관광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범국민 여행 캠페인의 일환이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에 운영되며, 각 달마다 다른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올해 10월은 고용노동부, 11월은 농촌진흥청이 참여기관으로 나선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누리집의 ‘농촌관광 가는 주간 이벤트’ 게시판에 사연을 남기면 된다. 선정 시 참여하고 싶은 이유, 방문하고 싶은 치유농장과 프로그램 이름을 함께 적으면 된다.

농진청은 사전 심사를 통해 총 20건을 선정해 1인당 2매의 무료 체험권을 증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31일 발표되며, 체험권은 11월 둘째 주(11월 9~15일)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 사용할 수 있다.

치유농장은 식물·동물·농촌환경 등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서적·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오상근 기자

## “조록빛 일상을 가꾼다”… 생활원에·치유농업 우수작 선정

농진청, ‘제21회 생활원에·치유농업 중앙경진대회’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은 생활원에 확산과 치유농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21회 생활원에·치유농업 중앙경진대회’의 분야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생활원에 교육과 치유농업 실천 현장의 성과를 공유, 국민의 삶 속에 농업이 가진 치유적·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에는 △생활원에 학교 학습원 분야에 도마초등학교(경남 남해), △치유농업 활성화 우수기관 분야에 경기도농업기술원, △치유농업 프로그램 분야에 누리봄이야기 농장(경남 진주), △치유농업 현장 전문가 분야에 고은원예치료센터 김영숙 대표(강원 춘천)가 각각 선정됐다.

도마초등학교는 전교생 45명이 참여



하는 소규모 생태 전환 교육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교 숲과 정원, 텃밭 배움터 등 교내 환경 자원을 활용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으로 반려식물 가꾸기, 생태 순환 텃밭 정원 만들기 등 주제별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치와 치유농업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산업 폐열, 농업의 새로운 에너지로

이승돈 농진청장, 대한제강 폐열 활용 스마트팜 방문 기술협력 논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이 농업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이승돈 농진청장은 10월 14일 부산 사하구 대한제강 내 폐열 활용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해 산업 폐열을 농업 에너지로 전환하는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의 실증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제강은 2023년 0.47헥타르 규모 유리 온실을 조성하고,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해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억1000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23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이승돈 청장은 “대한제강의 폐열 활용 스마트팜은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해 시설원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북 친환경 CNG 트랙터, 우즈베키스탄 첫 수출

전북에서 개발된 친환경 CNG(압축천연가스) 트랙터가 중앙아시아 시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의 참여 기업인 TYM(대표 김희용·김도훈)이 CNG 트랙터를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클러스터에 수출하며, 전북 농기계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수출은 1차로 30대, 약 2억 원 규모의 트랙터를 현지에 공급하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주요 농기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실증 및 보급이 본격 추진된다. 추가로 14대(약 8억 원 규모)의 수출이 예정되어 있어, 전체 수출 규모는 총 50대, 약 3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 인증과 기술 검증, 보급 및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한 것이 특

징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를 통해 친환경 농기계 보급의 국제협력 모델을 완성하고, 전북의 농기계 기술력이 해외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ODA 사업 외에도 국내 농기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농건설계기 수출연계형 글로벌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기업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출 맞춤형 시제품 제작, 설계·해석, 지식재산권 확보, 해외 마케팅, 전시회 참가, 국외 조달시장 진출, A/S 지원 등 전방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